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내년부터 마을돌봄터 신설...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2019년 마을돌봄터 10개소 신규 설치,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 상사일사간급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누구나 이용	여성가족 정책관	
② 경북도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결과 발표... 올해 31개 유형 21187건 발생 화재, 자동차 사고, 자살변사체 순... 맞춤형 안전 시책 추진 총력	안전정책과	
③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1편... 경북도에 제출 독도관련 일본 고문서 '죽도고', '죽도기' 등 번역... 연구의 저변 확대 사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竹島100問100答' 비평서 발간... 일본 논리 반박	독도정책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도로공사장 24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도로공사의 품질 관리와 건설시공,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	도로철도 공항과	
⑤ 경북도, 건축행정선진화로 도시품격 높인다 건축주택업무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 시군, 유공자 표창 2018 건축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 등 200여명 참석 워크숍 가져	건축디자인과	사진별첨
⑥ 치유 공감 소통 위한 자활 참여자 교육사업 성과보고회 가져 저소득 주민 자립의지 고취... 경북도 인문학 교육 성료	사회복지과	사진별첨
⑦ 경북소방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연찬회 가져 화재안전 수준 개선... 건축소방전가가스 등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본부	사진별첨
★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봉화 산타마을 개장식' 참석 ※ 12. 20(목) 보도자료 기 송부 - 이철우 도지사, 조순가정돕기 '희망나눔 음악회' 참석 ※ 12. 21(금) 보도자료 기 송부	대 변 인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하반기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증서' 수여 - 이철우 도지사, '제17차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회' 참석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정규식		
			팀장	안일환	주무관	김문현
		연락처	054-880-4592			

내년부터 마을돌봄터 신설...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2019년 마을돌봄터 10개소 신규 설치,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 -
- 상사·일사·긴급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누구나 이용 -
-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크게 줄여줄 것 -

내년부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돌봄터가 새롭게 설치되고, 돌봄 전문인력의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도내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핵심 공약과제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 예산 14억 5백만원을 투입해 마을돌봄터 10개소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마을돌봄터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내용(개소당 지원금액)
총 예산액		1,405	619	303	483	
국비 지원 사업	설치비	670	420	75	175	리모델링 50백만원, 기자재 구입 17백만원
	인건비	399	199	60	140	센터장, 돌봄교사(2명) 인건비 40백만원(9.5개월분)
도 자체 사업	돌봄 코디네이터	216	-	108	108	돌봄 코디네이터 인건비 年 21.6백만원
	사업비 및 운영비	120	-	60	60	사업비 年 6백만원, 운영비 年 6백만원

※ ‘19년 마을돌봄터 신설 지역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양, 영덕, 칠곡, 예천

마을돌봄터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마을회관, 아파트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군에서 설치

하고, 돌봄 전문인력을 배치*해 6~12세 아동에게 상시·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소당 4명 배치 : 센터장 1명, 돌봄교사(시간제) 2명, 돌봄 코디네이터 1명

〈2019년 마을돌봄터 설치 장소(예정)〉

- | | |
|----------------------|---------------------------|
| • (경주)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 내 | • (영주)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 |
| • (김천) 휴폐지 어린이집 활용 | • (영양) 영양 공립형지역아동센터 내 |
| •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 • (칠곡) 칠곡3공단 부영아파트 공용시설 내 |

특히, 전국 최초로 돌봄교사와 더불어 ‘돌봄 코디네이터’를 별도 배치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 부모들의 요구와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사회복지사, 재능기부, 자원봉사, 문화예술체육강사 등

또한 돌봄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돌봄 기관 간 연계·협력 등 지역 내 초등 돌봄 컨트롤 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 도내 돌봄기관 현황 : 지역아동센터 271개소, 초등돌봄교실 797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3개소,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23개소

그동안 정부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던 탓에 가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부모 병원 이용과 같은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일시·긴급 돌봄 서비스도 부족했다.

또한 돌봄 사업이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3개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약 33천 명 중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약 22천 명 정도로 초등 돌봄 수요 충족률이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마을돌봄터가 70개소로 확대되면 연간 2천 명 이상의 아동들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맞벌이 부모 자녀 등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돌봄사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마을 공동체가 협력해 지역 상황,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돌봄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워킹맘의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초등 돌봄 공백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5,841명이 퇴사)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나서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기반의 마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번 마을돌봄터 사업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 기반의 마을 돌봄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마을돌봄터 신설과 함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기존 돌봄 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초등 돌봄 수요충족률을 2022년까지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추진배경

- 돌봄사업은 3개 부처 6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간 연계 부족
- 초등돌봄 수요 충족율은 65.6%로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
- ⇒ 마을돌봄터 설치·운영으로 돌봄 공급량 확대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사업개요

- 사업량 : 10개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양, 영덕, 칠곡, 예천)
- 사업대상 : 상시·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도내 모든 초등학생(소득수준 무관)
- 사업내용 : 마을별 돌봄 공간·인력·프로그램을 갖춘 상시 돌봄터 마련
 - (공간) 주민센터, 복지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 (인력) 개소당 4명(센터장 1, 돌봄교사 2, 코디네이터 1)
- 사업비 : 1,405백만원(국비 619, 도비 303, 시군비 483)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내용(개소당 지원금액)
국비 지원 사업	설치비	670	420	75	175	리모델링 50백만원, 기자재 구입 17백만원
	인건비	399	199	60	140	센터장, 돌봄교사(2명) 인건비 40백만원(9.5개월분)
도 자체 사업	돌봄 코디네이터	216	-	108	108	돌봄 코디네이터 인건비 年 21.6백만원
	사업비 및 운영비	120	-	60	60	사업비 年 6백만원, 운영비 年 6백만원

추진일정

- '18년 12월 : '19년 마을돌봄터 사업 지침 마련
- '19년 1~12월 : 시군별 마을돌봄터 개소·운영
- '22년 까지 : 연차적 확대 설치 ('19) 10 → ('20) 25 → ('21) 45 → ('22) 70개소

기대효과

- 돌봄사업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유 창 근		
			팀 장	권경수	주무관	김영길
		연 락 처	054-880-2312			

경북도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결과 발표.. 올해 31개 유형 2118건 발생 **- 화재, 자동차 사고, 자살·변사체 순... 맞춤형 안전 시책 추진 총력 -**

경상북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재난 안전정책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도 119출동(1월~11월)건수, 교통통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총 31개 유형에 2,187건이 발생해 39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 1,244건(56.9%), 자동차 사고 422건(19.3%), 자살·변사체 136건(6.2%) 순이며,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139건, 자살·변사체 121건, 생활레저 40건, 산업현장 40건, 화재 18건, 기타 39건이다.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12.10.기준) 사망자가 총 184명으로 지난해 211명에 비해 약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가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취약지구, 사고 다발 지점에 고원식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설치, 사고다발지역 개선 사업, 시설물 보강사업 등 14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1,634백만원을 투입해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농촌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150명(2018년 51명, 2017년 49, 2016년 50)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사망사고는 의성이 23명, 안동 18명, 상주 11명,

영덕 10명 순으로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운전조작 부주의, 안전불감증, 주의태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농기계 사망사고를 재난수준으로 인식하고 올 8월에는 농기계 대리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 내년에는 농기계 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종전의 농기계 교육 방식을 벗어나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시스템 개선과 과감한 투자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 도정의 첫 번째 일”이라며

“이를 위해 주기적 사고 분석과 안전기반 시설 보강 및 시스템개선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독도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원 창 호		
			팀 장	정영모	주무관	이소리
		연 락 처	054-880-7782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 21편... 경북도에 제출

- 독도관련 일본 고문서 ‘죽도고’, ‘죽도기사’ 등 번역... 연구의 저변 확대 -
-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竹島100問100答’ 비판서 발간.. 일본 논리 반박 -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회장 김병렬 국방대 명예교수)는 9년간의 연구 성과를 분석한 ‘독도사료연구회 최종보고서(2010~2018)’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발족시킨 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이론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국내·외 자료의 지속적 발굴과 보전을 위해 2010년 2월 발족했다.

김병렬 독도사료연구회장은 9년간의 주요 활동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동안 한국학계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던 독도관련 일본 사료의 전문(全文) 번역 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사료를 번역·출판한 것을 사료연구회의 첫 번째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전문(全文) 번역한 일본 사료는 ‘죽도고竹島考’와 ‘죽도기사竹嶋紀事’이며, 특히 ‘죽도기사’는 「울릉도 쟁계(안용복 사건)」를 조일 외교 창구였던 쓰시마번 관리가 작성한 공식 기록이라 가치가 높다. 이를 2년 간 탈초, 번역 작업을 거쳐 번역서를 발간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사료 ‘갑자야화甲子夜話’, ‘텐포찬요류집天保撰要類集’ 등은 1836년 하치에몬 사건을 계기로 에도막부가 2차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사료연구회의 성과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난 2014년 2월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竹島問題100問100答’을 간행하자, 국내 연구 기관 관련 부처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그해 6월 ‘竹島問題100問100答에 대한 비판’을 간행해 일본 측 논리를 즉각 반박한 것이다.

이후 시마네현은 연구회의 비판서에 대해 2015년 8월 다케시마문제 연구회가 3기 최종보고서(부록)에서 재반론하자, 연구회는 2016년 ‘竹島問題100問100答 비판2’를 통해 재반박했다.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은 “한일 간의 역사적 쟁점에서 ‘『태종실록』 17년 2월 5일 기사에 김인우가 우산 거주민 3명을 데리고 나왔고, 우산도에 15가구 86명이 살고 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실록』에는 김인우가 무릉도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 『태종실록』의 우산도는 무릉도의 오키이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울릉도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창호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일본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료연구회에서 일본 측 사료를 번역해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은 큰 성과”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사료의 발굴과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독도사료연구회, 국역 일본사료 일람표

번호	사료명	주요내용	연구회 출판년도
1	죽도고竹島考	1828, 돛토리번사, 안용복 행적 기록	2010
2	죽도기사竹嶋紀事	1726, 쓰시마번사 편찬, 울릉도쟁계	2012~2013
3	죽도도설竹島圖說	18세기 19세기 돛토리번에서 전국적으로 ‘죽도’의 인식이 확산	2014 독도관계 일본고문서 1
4	다케시마잡지多氣甚麼襍誌		
5	죽도잡지竹島雜誌		
6	죽도판도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	1881 외무성관리 기록<죽도고증> 요약본	
7	무라카와 씨 구기 村川氏舊記	1724, 무라카와 가문 소장	2015 독도관계 일본고문서 2
8	죽도에 관한 7개조 답변서 竹島に關する七個條返答書	죽도(울릉도)의 소속을 질의 답변	
9	이케다 가 문서池田家文書	울릉도 쟁계에 대한 이케다 가 문서	
10	무라카와 가 부 죽도도해 村川家附竹島渡海	울릉도 쟁계에 대한 무라카와 가 문서	
11	이와미 외기石見外記	하마다번 이와미국의 관련 기록	
12	통항일람通航一覽	죽도일건과 죽도(울릉도) 유래 기술	2016 독도관계 일본고문서 3
13	통함일람 속편通航一覽續編	덴포 죽도일건 처리 결과	
14	덴포잡기(마쓰다이라 보슈 일건)天保雜記 松平防州一件	누마다 번에서 펴낸 덴포 사건 처리	
15	조선 죽도 도항시말기 朝鮮竹島渡航始末記	하마다번에서 펴낸 덴포 죽도일건	
16	갑자야화甲子夜話	히라토 번주가 펴낸 덴포 죽도일건	
17	덴포 찬요류집天保撰要類集	하치에몬의 사건	2017 독도관계 일본고문서 4
18	무숙자 단속 일건 無宿狩込一件	덴포 죽도일건에 대한 평정소 판결 기록	
19	대마도 종가문서 對馬島 宗家文書	울릉도 독도 언급 자료 발췌 번역	
20	무라카와 가 문서 村川家文書	1744, 죽도도해금지령	
21	조선국 울릉도에 불법 도항한 일본인 처분건 朝鮮国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処分ノ一件	1833년 울릉도로 도항하여 벌목을 자행하던 일본인들을 단속하여 귀국시킨 사건과 관련된 문서	2018 독도관계 일본고문서5

* 21은 2019년 2월 발간 예정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공항공과			
		작성 자	과 장	노 훈 탁		
			팀 장	김 영 주	주무관	박 태 현
		연 락 처	054-880-3978			

경북도, 도로공사장 24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 도로공사의 품질 관리와 견실시공,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 -

경상북도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폭설 등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관련 공종에 대해 24일(월)자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동절기 현장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하였으며, 공종상 부득이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승인 후 감리(감독) 입회하에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동절기 도로결빙과 폭설 등 취약 지역에는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을 현장에 비치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안전사고와 민원발생에도 대비토록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동절기 공사중지는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시공을 위해 부득이 취하는 조치로, 겨울철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를 위하여 공사장내 노면, 가도를 정비하고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 장비 확보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비상연락망을 재정비 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성자	과 장	강 성 식			
			팀 장	황 석 호	주무관	이 경 미	
		연 락 처	054-880-4016				

경북도, 건축행정선진화로 도시품격 높인다

- 건축주택업무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 시·군, 유공자 표창 -
- 2018 건축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 등 200여명 참석 워크숍 가져 -
- 서울대 김광현 교수의 ‘사회가 만드는 건축’ 특강 및 토론회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 황룡원에서 도 및 시·군 건축담당공무원,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경상북도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2018년 건축·주택업무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유명 건축가 특강, 2019년 주요업무 설명, 부실 시공방지 교육에 이어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건축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주택·주거복지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 결과 대상에는 김천시, 건축분야는 경주시·칠곡군, 주택분야는 문경시·의성군, 주거복지분야 경산시·예천군 등 7개 시·군에 기관표창을 수여하고 업무유공자 4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대 김광현 교수는 특강에서 ‘사회가 만드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시대 문화를 반영한 세계적 건축물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으며, 국가건축위원회 박기범 서기관은 ‘중간건축*을 통한 건축혁신’이라는 주제로 가장 보편적인 기능을 담는 중간건축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의 기능 회복과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해 열강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중간건축 : 다가구·다세대 주택, 점포주택, 옥탑, 반지하 주택 등

또한, 지진피해 복구 사례 등이 포함된 포항시의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란 내용의 주제 발표와 영양군이 추진한 농촌 지역의 노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사례, 김천시의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제’ 시행 성공사례 등의 사례발표에 이어 시군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열띤 토론과 화합의 시간을 함께 했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올해도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해 애써준 시군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안전한 건축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건축인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작성 자	과 장	신 현 욱		
			팀 장	이근식	주무관	김현미
		연 락 처	054-880-3724			

치유, 공감 소통 위한 자활 참여자 교육사업 성과보고회 가져

- 저소득 주민 자립의지 고취... 경북도 인문학 교육 성료 -

경상북도는 21일(금) 세계 물포럼기념센터 강당에서 도내 자활참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자활참여자 교육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참여자 교육사업은 2개 과정(자격증 취득, 인문학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인문학 교육은 도내 5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이 올 6월부터 참여해 ‘나도 시인’, ‘우리동네 연극배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회는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주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인문학 교육에 참여한 주민 스스로가 지은 시와 연극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로, 그 중 안동지역자활센터의 ‘우리 동네 연극배우’ 프로그램은 자전적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자기 삶을 공연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듣기만 하던 인문학 교육에서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나가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신현욱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경북도는 자활참여자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8. 12. 23(일)】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 자	과 장	정 창 환		
			소방령	안영호	소방경	황길석
		연 락 처	054-880-6241			

경북소방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연찬회 가져

- 화재안전 수준 개선...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위험요인 조사 -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울진군 호텔덕구온천&리조트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 특별조사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내년 말까지 도내 다중이용 건축물 약 4만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날 연찬회는 이창섭 본부장의 ‘소방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성과와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를 초빙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전기분야의 시설특성 및 조사방법을 연찬했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경북도의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형화재 예방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책인 만큼 철저히 조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사 진 설 명

□ 이철우 도지사, ‘봉화 산타마을 개장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2일(토) 봉화 분천역 광장에서 열린 ‘봉화 산타마을 개장식’에 참석했다.

※ 12. 20(목) 보도자료 기 송부

□ 이철우 도지사, 조손가정돕기 ‘희망나눔 음악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2일(토)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조손가정 돕기 ‘희망나눔 음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 12. 21(금) 보도자료 기 송부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하반기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증서’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월) 오전10시30분 도청 다목적홀에서 하반기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 이철우 도지사, ‘제17차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월) 오후4시 경상북도 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17차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한다.